



I 이달의 소식

1. 모임안내

1쪽

II 내용

- | | |
|--|----|
| 1. 노아의 홍수 (22) 파괴한 땅 - 이재만 | 2쪽 |
| 2. Victor's Bible Journey (1) 창조 - 이종헌 역 | 4쪽 |
| 3. 과학으로 하나님을 만나다 (30) 유전공학과 창조과학 - 김경태 | 6쪽 |
| 4. 새로 바라본 그랜드캐니언 (5) -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역 | 9쪽 |

인사말



6월은 6월이라 밝고 따가운 햇살이 구석구석 쏟아집니다. 자연은 자연스런 진리라서 한결같은 웅변입니다. 인간은 요란한데 하나님의 미소는 늘 새롭기만 합니다. 영원한 주권 앞에 곧 무릎.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소식지를 대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께 평안을 빕니다. 이성과 비이성, 과학과 비과학이 사방으로 에워쌀 찌라도 성경의 말씀은 여전히 순전하여 이를 수증드는 이들을 향해 충성되다고, 수고한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6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연구위원 김 명 철 올림 -

1. 모임 안내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에서는 정기 스터디모임(1, 3째주 목요일)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과학 자료를 발굴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보다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며, 상호교제를 통해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모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2009년 9월 3일(목)

장소: 제일교회 본당 지하1층

☎ (053) 743-6058

내용: In the Beginning (최신판)

(by Walt Brown)





패괴한 땅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창 6:11-12)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 창세기 6:11-12, 새번역

창조론자가 아니면 모두가 진화론자인가? 창조모델과 진화모델 말고 다른 모델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질문을 가끔 받곤 한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기원에 관한 한 둘 중에 하나의 결론에만 도달함을 알 수 있다. 세상의 시작은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므로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한 내용이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보이는 것이 변하여 왔다는 시간을 중요시 하는 진화와 반면에 보이지 않는 분의 설계(design)를 중요시하는 창조밖에 있을 수 없다. 전능하신 분이 설계하지 않았다면 오랜 시간으로 미룰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위와 같은 질문을 하는 마음의 의도는 창조와 진화를 다루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식의 마음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진화론적 세계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물론적 세계관이다. 왜냐하면 이는 물질에 의해서 모든 것이 형성되었다고 믿기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화론을 믿으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진화론자들은 눈에 보이는 “자연”(nature)을 중요시 여긴다. 그들은 자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자연 때문에 산다는 내용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자연이 아니라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때문에 산다. 실제로 성경이 세계를 자연이라고 표현한 곳을 찾아볼 수 없다. 성경은 이들을 “피조물”(creature 또는 creation)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naturally)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create)하신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들을 다스려야 할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피조물을 자연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다. 우리는 태양이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태양을 창조하신 그분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태양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와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하늘의 일월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왕하 17:16). 하나님을 버리면 보이는 것을 섬기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래서 일월성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라 가운데 태양을 숭배하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며, 결국은 보이는 태양에 의지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이들을 예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또 그들은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명을 내버리고, 쇠를 녹여 부어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우고, 하늘의 별들에게 절하며, 바알을 섬겼다. - 열왕기하 17:16, 새번역

성경은 노아홍수 직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패괴하였다고 표현했다. 성경은 여기에서 이 단어를 세 번이나 사용했다. 영어로 보면 'corrupt' 즉 타락, 오염, 부패했다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corrupt)하고 소생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시 14:1). 성경은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면 부패하고 선을 행하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말한다. 바로 그것이 사람의 한계이기 때문이다. 노아홍수 때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일부러 잊으려 했다(벧후 3:5). 그러므로 그들은 패괴 할 수밖에 없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 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 시편 14:1, 새번역

오늘날도 우리는 진화론적 사고로 사람이 하나님 위에 있고, 자연이 하나님 위에 있고, 더 나아가 자연이 사람 위에 있는 이상하리만치 성경과는 완전히 역관계를 이룬 세상을 보고 있다. 이로 인해 표준을 잃어버린 타락한 세상을 보고 있다. 낙태, 동성애, 나체주의, 안락사, 인종차별 등 수많은 이슈에 대하여 표준 없이 흔들리는 세상을 보고 있다. 우리는 물심판을 받을 당시의 창조주를 잃어버린 결과 패괴된 모습과, 진화론적 사고로 패괴해가고 있는 오늘의 모습을 통해 “노아 때와 같은 인자의 때(눅 17:26-27)”를 느껴야 할 것이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렘 2:13). 패괴하게 만든 진화론의 웅덩이를 버리고 근원되신 창조주께 속히 돌아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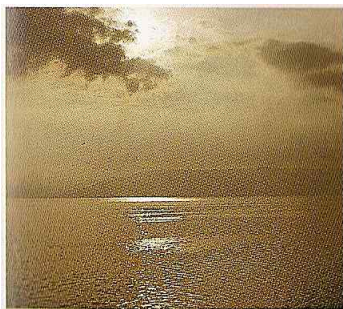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 예레미야 2:13, 새번역

출처: <http://www.kacr.or.kr/library/itemview.asp?no=2388¶m=type=C|authname=이재만> **참조**

창조 (Creation)

무(無)로부터 하나님이 세상과 그것을 둘러싸는 모든 것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분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것은 창조였다.

창조의 7일



제1일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고 그 빛을 어둠으로부터 나누셨다. 그분이
그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제2일

하나님이 땅과 하늘(우주와 하늘들)을 만드셨고, 그 둘을 분리하셨다.



제3일

하나님이 대양을 마른 땅으로부터 분리시키셨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종류의 식물과 나무들을 창조하셨으며, 그것들은 각기 자기
의 씨를 지녔다.



제4일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다. 그분이 그것들을 하늘에 두셔서,
지구를 위해 빛을 제공하고 해의 연한을 이루게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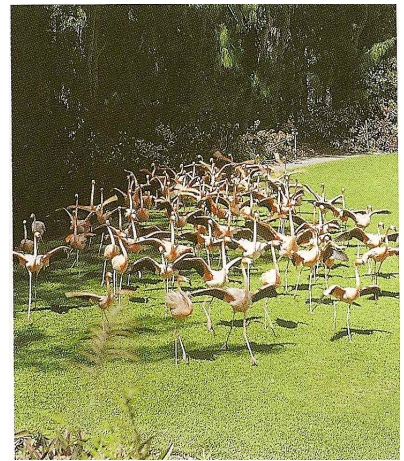


제5일

하나님이 대양과 호수에 사는 물고기와 모든 다른 생물들을 만드셨다. 그분이 또한 새들을 만드셔서 땅 위를 날게 하셨다.

제6일

하나님이 사람과 모든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분은 또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다.



제7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행하셨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다.

성경의 세계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모든 세상과 비교할 때, 성경의 세상은 작았다. 성경의 세상 속에 포함된 사건은 고대 근동이였으며, 최초로 알려진 국가들이 그곳에서 발견되었으므로 때로 우리가 “문명의 요람”이라고 부른다. 수많은 제국들이 멸망했지만, 심지어 오늘날에도 이 지역은 세상의 주목을 받으면서 남아있다. **창조**



유전공학과 창조과학 (Genetic Engineering & Creation Science)

아이들은 부모를 닮았으나 부모와 같지 않고 같은 부모에게서 난 아이들끼리도 같지 않으며 심지어 쌍둥이라도 조금은 다르다. 이렇게 부모의 특징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현상과 전달되는 동안에 조금씩 변이가 일어나는 이 두 가지 현상이 생명체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이 프로그램은 조금씩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DNA의 네 가지 염기로 썩어져 있고 이 염기서열이 생명체의 성장과 활동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복잡한 프로그램이지만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읽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지식은 1800년대 중반 오스트리아의 수도원 정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멘델(Gregor Johann Mendel; 1822-1884)은 1866년 그의 유전법칙을 발표하였으나 완전히 무시되었다가 1900년에 새롭게 관심을 받아 유전학의 초석이 되었다. 멘델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생명체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해지는 것은 부모의 유전자라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유전학자들은 곧 유전자를 갖고 있는 세포의 염색체를 발견하였고, 1953년에 왓슨(Watson)과 크릭(Crick)은 이중나선구조로 이루어진 DNA의 구조를 밝혔다. DNA의 구조가 밝혀진 후 분자 생물학이라는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고 DNA의 염기배열 순서를 읽을 수 있는 방법도 개발 되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자 전체의 염기 서열을 읽고자 하는 게놈 프로젝트(genome project)가 추진되어 전체 염기서열의 해독이 끝났다.

사람의 염색체는 30억 개의 뉴클레오티드로 이루어져 있어 이들의 염기서열을 전부 밝히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많은 연구비가 소요되지만 1988년에 시작이 되었고, 연간 2억불의 연구비가 투입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우선 염색체에서 특정 유전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유전자 지도의 작업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는 염기 서열을 결정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유전자의 기능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알게 되면 특정 유전자를 조작하여 변화시킬 수 있다. 1973년 박테리아에 박테이오파지(bacteriophage)의 감염에 대항하기 위한 장치로서 제한효소가 존재함을 발견하였고 이어서 DNA의 복제와 정보전달에 관여하는 효소들을 분리하고 규명함으로써 DNA의 특정 부위를 절단하고 접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박테리아 세포 안에 복제할 수 있는 플라스미드(plasmid)라고 하는 작은 유전자가 있음을 알았고 이를 이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잘라 플라스미드 안에 삽입하고 다시 박테리아에게 넣어 줌으로서 새로운 형질을 발현케 하는 유전자 조작 기술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전자 조작 기술은 DNA 염기배열상의 돌연변이를 탐색할 수 있게 하고 많은 유전적 질환을 진단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사람에게 필요한 호르몬이나 효소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고, 작물에도 원하는 유전자를 삽입하여 병충해나 냉해에 잘 견디는 식물로 개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비즈니스맨들의 관심을 끌게 되어 상업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는데, 1970년대를 기점으로 수많은 생물공학 및 유전공학 회사들이 세워지고 있다. 처음에는 사람의 인슐린, 성장 호르몬, 인터페론과 같은 의약품 위주의 생산을 목표로 했는데 점차 영역이 넓어져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박테리아를 농업이나 폐수처리, 화학물질의 오염처리 등에 응용하고자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박테리아가 실험실로부터 우리 주위의 환경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형질의 미생물이 바깥에 노출됨으로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1975년 아실로마(Asilomar) 회의에서 잠재적 위험이 있는 실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30여년이 지난 지금, 1975년에는 상상하지 못한 실험들이 일상적으로 수행되고 있고, 뚜렷한 위험이 아직 노출되지 않고 있어 전에 정해 놓았던 가이드라인은 점점 완화되고 있다. 하지만 폐수처리나 농작물의 개발을 위해 환경에 뿌려지는 미생물에 의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새로운 종의 미생물이 낯선 환경에 유입될 때의 엄청난 위험을 역사는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7년 내셔널아카데미오브사이언스(National Academy of Science: NAS)는 유전적으로 조작된 미생물의 유입으로 인한 환경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적절한 과학 지식이 안전하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보고 하였다. 하지만 이 보고는 여러 생태학자들에 의해 생태계의 지식이 간과되었고, 유전공학 연구의 활성화만을 위한 편견에 치우친 결론이라고 즉각적인 반박을 받았다.

한편, 유전자 조작 기술을 사람에게 적용하여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경우 유전자 치료법이 고안되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유전자를 사람의 체세포에 넣어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발생초기세포에 유전자를 삽입하는 것으로서 다음 세대에도 변형된 유전자가 전달될 수 있다. 어떤 유전자에 결함이 생겨 발생하는 유전병의 경우 그 유전자가 주로 발현되는 조직에 정상적인 유전자를 도입함으로써 고치고자 하는 **체세포 유전자 치료법은 윤리적으로도 큰 문제점을 갖지 않으나, 발생초기세포에 유전자를 삽입하는 것은 기술적인 면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이는 자손에게 전달되는 사람의 유전자 흐름을 변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환경 운동가인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발생 초기세포에 유전자를 삽입하는 것이 무절제하게 이루어지면 생체의 유전자를 우수한 것으로 개선하고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개발한다는 미명 아래 유전자의 바뀌치기가 마구 이루어짐으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오늘날 유전공학은 유전자의 작용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보다는 산업적 경제적 측면에 기본적인 관심이 있다. 따라서 공익보다는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유전공학을 절제하고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며 유전공학을 통한 장밋빛 미래만을 강조하고 있다. 즉 유전공학이 암이나 심장병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생화학자 카발리에리(Cavalieri)는 유전공학에 대한 적절한 조절과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과학자가 사회적 양심을 가지고 연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호기심의 자유만을 부르짖으며 맹목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의 질에 어떤 변화와 충격이 올지 모르며 궁극적으로 어떤 사태가 발생할 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생물학자 데이비드 윌콕스(David Wilcox)는 생명체의 핵산에 존재하는 정보는 그 생명체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로서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자손에게 유전되도록 만드신 DNA의 정보에 순응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체를 향한 명령, 즉 유전자를 관독하고 수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술은 유익과 해악을 함께 지니고 있다. 즉 유전공학 기술은 과학의 윤리적 딜레마의 하나다. 그러면 앞으로 야기될지 모를 위험 때문에 이를 중지해야 하는가?

창세기 1:28("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새번역)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문화명령에 따라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를 창출하는 존재다. 유전자 조작기술도 하나님의 창조원리의 이해를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기술의 의학적 적용에서 도덕적 정의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잠재적 해악을 내포하고 있는 실험은 피해야 하고 단순한 호기심 충족의 차원에서 벗어나 공익을 우선하는 책임 있는 연구자세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그리고 우리는 유전공학 연구를 감시하고 교회나 사회에 대해 어떤 것이 도덕적 선택인지를 분명히 해석하고 알려야 할 것이다.

유전공학의 발달로 생명의 신비가 벗겨짐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인간의 교만을 부추길 확률이 높다. 하지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한 청지기로서 생명의 신비를 알아갈수록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겸손해지며 사회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출처 : '과학으로 하나님을 만나다' 중에서 **창조**

그랜드캐니언 새로 바라보기

사실, 그랜드캐니언은 세상에서 가장 두드러진 자연 경관 중의 하나입니다. 모든 이들이 이곳에서 뭔가 흥미롭고 중요한 것을 스스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놀라운 경치에 탄복하며 바라보는 반면, 자연과학분야의 전문가들은 독특한 지질학적 광경에 매료됩니다.

그랜드캐니언에서 가장 젊은 암석인 우인카렛 고원(Uinkaret Plateau)의 용암류에 의해 덮인 채 ‘기반암’(basement rock)으로 불리는 캐니언의 가장 오래된 암석의 상부에 놓여있는 연속적인 퇴적지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질학자는 캐니언의 가장자리에서 강 언저리로 내려가면서 사건의 전체 순서를 차례로 단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알렉스 랄로모프(Alex Lalomov)



(사진: 그랜드캐년의 Mather Point에서, 대구지부제공)

잔 웨슬리 파웰(John Wesley Powell; 1834-1902)은 1869년에 레드월 동굴(Redwall Cavern)을 탐험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강물이 L자로 굽은 이곳을 빠르게 지나가면서 암석을 깎아 거대한 반원형의 공간을 만들었다. 만약 이 곳이 극장으로 이용된다면, 50,000명은 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크기보다 과장되었는데, 현실적으로는 5,000명만이 앉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터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이사야 42:5, 새번역

I am the LORD God. I created the heavens like an open tent above. I made the earth and everything that grows on it. I am the source of life for all who live on this earth, so listen to what I say. - Isaiah 42:5, CEV

조용히 하여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 시편 46:10, 쉬운성경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 시편 46:10상, 새번역

Our God says, "Calm down, and learn that I am God! All nations on earth will honor me." - Psalms 46:10, CEV

과학적 관점에서 기원이라는 문제에 대해 오랜 세월동안 연구한 후에, 과학적 사실들이 특별창조야말로 기원에 대해 유일하게 합리적 설명임을 보여준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말씀은 여전히 기원에 대해 가장 최신 주장입니다.

- 듀안 기쉬(Duane Gish) **참조**



(사진: 그랜드캐년 Mather Point에서, 대구지부 제공)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kr)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이메일 주소(ssoya89@hanmail.net)로 요청사항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달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